

공원사랑 국민적 인식 앞서야

—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사법경찰권 부여에 즈음하여—



이 고 봉 < 지리산국립공원남부관리사무소장 >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연풍경지로서 경관이 빼어날 뿐만 아니라 희귀 동·식물 및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생태적 보호가치가 더없이 높은 지역으로서 자연생태계 보호기능, 학술연구자료제공기능, 자연교육장소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후손에게 물려줄 자연유산이다.

1991년이후 자연생태계보전을 위해 국립공원내에서는 취사·야영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취사·야영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쓰레기 투기, 동·식물 밀렵과 채취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법행위 근절이 안되는 것은 국립공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부족이 큰 걸림돌이며, 국립공원내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없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으로서는 이것들을 완전히 근절하기란 어려운 실정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4월 국립공원관리공단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공원내 쓰레기투기, 자연훼손 등 경범죄 처벌법 위반행위를 하는 현행법에 대해 소정의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권한이 주어진 것은 국립공원관리의 진일보라고 할

수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에게 사법권이 부여된 것은 국립공원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재인식시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사실 국립공원의 지정목적과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직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여 단속하게 하는 이유를 국민들은 생각해 볼 문제이다.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없는 일시에 수만명이 찾아오는 탐방객에 비추어 수십명의 공원관리인력으로는 아무리 법적 권한이 주어진다해도 불법행위를 막을 방법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리산국립공원에서는 국립공원직원의 사법권 부여를 탐방객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각종 홍보물을 이용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립공원내 경범죄위반행위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으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앞으로는 사법경찰권을 강력하게 시행하는 것이 국립공원내 자연훼손행위를 근절하는 최대의 홍보효과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국립공원내 사법권은 경범죄처벌 뿐 아니라 자연생태계보전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맞게 자연훼손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립공원을 잘 보전하는 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의 몫이라기 보다는 국민 모두의 몫이며, 국립공원을 찾는 사람들은 자연이라는 집에 놀러오는 손님처럼 겸손하고 예의바르게 자연을 찾아주기를 당부드린다. ♪